

제7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2월 7일)

## 청자실 새단장 둘러보기

서유리, 303호 청자실 18:00~18:30

지난 11월 23일에 새롭게 단장한 청자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자실은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국보), <청자 참외모양 병>(국보) 등 24점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250여 점을 전시합니다. 고려청자는 10세기 이후 제작되어 12세기 아름다운 비색翡色청자와 상형청자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상감기법을 필두로 다양한 제작 기법과 장식으로 다채로운 청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로 단장한 청자실은 ‘고려비색’ 공간을 조성하여 ‘사유의 방’에 이어 박물관의 두 번째 대표 문화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비색청자 중에서 상형청자를 엄선하여 전시했으며 고려 비색청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몰입형 공간입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음악 ‘블루 셀라돈(Blue Celadon)’이 연주되는데 미디어 아티스트 다니엘 카펠리앙(Daniel Kapelian)이 작곡했습니다. 비색翡色청자란 은은하면서도 맑은 비취색을 띤 절정기의 고려청자로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1091~1153)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한 후 남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당시 고려인이 청자 중주국인 송나라 청자의 비색祕色과 구별하여 고려청자의 색을 비색翡色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었으며, 서긍 역시 고려 비색청자를 극찬했습니다.

더불어 초기 청자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알 수 있는 공간, 부안 유천리 청자만의 서정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풍성한 고려청자의 면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자실에서 한국 문화재를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1. 고려비색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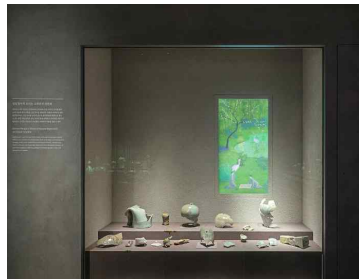


그림2. 유천리 상감청자



그림3. 상감청자 전시 공간

##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6)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의 운영 -

김진실,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 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서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동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그림1.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 고려시대 청자향로

이용진, 303호 청자실 19:00~19:30

향은 향기가 나는 수지樹脂, 줄기, 뿌리와 잎으로 만들며, 향을 태우기 위해 만든 용기를 향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향과 향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고려시대가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청동을 비롯해 청자와 도기 등 다양한 재질로 향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은 불교의례용 향로인 향완이 대표적이고, 청자는 정형향로를 비롯해 뚜껑 위에 동물이 장식된 청자동물장식향로 등이 있습니다. 한편, 청동향완을 재료적으로 변안한 청자향완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의례에는 향완과 긴 손잡이가 달린 사자진병향로와 연꽃과 가지를 형상화한 연지형병향로 등이 쓰였습니다. 반면 왕실과 지배층에서는 불교 사찰과는 다른 기형의 향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로 만든 향로에는 중국 고동기 정鼎을 모방한 청자정형향로가 있습니다. 청자정형향로는 『선화박고도』 상소부정商召夫鼎의 모방을 시작으로 점차 다리와 몸체의 문양을 변화시키는 고려시대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청자동물장식향로는 세 다리와 평평한 입이 달린 납작한 몸체와 동물이 장식된 뚜껑으로 구성됩니다. 향로의 뚜껑에 장식되는 동물을 향수香獸라고 하는데, 향수는 북송 홍추洪芻가 쓴 『향보香譜』에 처음 등장하며, 향수로는 산예狻猊, 기린麒麟, 원앙과 오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동물장식향로에는 산예와 기린, 원앙과 오리 이외에 귀룡龜龍과 어룡魚龍 등도 나타나고 있어 향수가 보다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홍추의 『향보』에는 동물장식향로에 태운 종이재 위에 인향전印香篆을 피운다고 언급하고 있어 고려시대 청자동물장식향로에도 같은 방법으로 향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자동물장식향로는 대부분 개성부근에서 출토되어 왕실과 지배층에서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삼국유사』권4 양지사석조良志使錫條의 기리는 말에는 ‘향로에는 전단향 조용히 피어나네 [靜裝爐鴨自焚檀]’라는 내용이 있어 일연스님도 청자오리장식향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자동물장식향로와 몸체는 공유하지만, 뚜껑에 만근자를 투각한 청자향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 향로 중에는 연꽃을 모티프로 활용한 향로도 제작되었는데, 불교의례용인 연지형병향로와 함께 향로의 몸체에 연꽃을 표현한 청자연화형향로도 있습

니다. 청자연화형향로는 몸체만 있고, 뚜껑은 전하지 않지만, 중국의 예를 보면 동물이 장식된 뚜껑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려시대의 청자향로는 강진에서 만들어졌고, 뱃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송되었으며, 운송 도중 난파로 인해 침몰되기도 하였고, 천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수중발굴을 통해 다시 빛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림1. 고려시대 청자향로





제7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2월 7일)

## 조각의 미, 중국 명대 조칠기

이정은, 309호 중국실 19:00~19:30

15세기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을 축조한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는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황제 전용 조칠 칠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영락제는 원대 강남 휴철의 대가 장성張成의 아들 덕강德剛을 불러들여 칠기 제작을 담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영락 연간에는 중국 남방 서당西塘의 조칠기법 중에서도 척홍칠기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조칠 기법은 값비싼 옷을 여러 번 덧바르고 건조한 뒤에 무늬의 배경을 깎아내는 것으로 칠층의 두께와 조각에 따라 문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조효과를 내는 기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덧발라 칠층을 만들고, 이 단단하게 굳은 옷칠 층에 칼로 무늬를 새기는 작업은 옥玉 조각처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까다로운 공정으로, 이 과정을 거친 조칠기는 청자나 옥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칠 기법에는 붉은 칠층을 조각하는 척홍 기법, 검은 칠층을 조각하는 척흑 기법, 검은 칠층과 붉은 칠층을 번갈아 덧발라 조각한 척서 기법 등이 있습니다.

중국실에는 명대에 유행한 척홍기법으로 만든 죽림칠현도무늬 큰 접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접시의 중앙에는 위魏나라 말 부패한 정치권력에 등을 돌리고 죽림竹林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은자隱者의 모습을 담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조각하였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삼층 전각으로 표현된 현실 공간이, 그리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대비되는 공간인 죽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은둔 공간인 죽림 안에서 칠현들은 소나무 아래 바둑을 두거나, 대나무숲 속에서 술을 마시며 한담을 하고, 두루마리를 펼치며 시서화를 논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접시와 유사한 것으로는 명대 만력 연간에 제작된 베이징[北京]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소장 죽림칠현도무늬 접시가 있습니다. 명대 후반에서 청대 초기에 크게 유행한 죽림칠현무늬는 사대부들이 즐겼던 서화 장르를 공예 작품에 끌어 들여 장식한 것으로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던 명나라 말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